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 .

사도행전 16장 6-10절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소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케도니아 콜’로 알려진 말씀이죠.

누군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손짓하고 부른다면 선교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꿈같은 일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사도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환상적인 기적을 보고 행한 것보다 일상적인 사역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제게 들어온 몇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할 때, ‘순조로움’과 같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 힘든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뜻을 막으시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을 행하는 자의 애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까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잘못된 결과를 맛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지 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을 막으실 때이다!”

사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막힐 때, 절망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의 전도여행’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조금 이해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도바울은 세 번의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행으로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1.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교회를 돌보았고, 거기에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 ‘루스드라’로 도망가 앓은뱅이 된 자를 고친 일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나타나는 안디옥(시리아)/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안디옥(비시디아)/이고니온/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 도착

위의 여정을 연결해 보면 바로 이 지역이 ‘소 아시아’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의 아시아로 복음이 빨리 전파 되었겠지만,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에 나와 있으니, 오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은 1차 전도여행 후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드리게 되면서 발생한 ‘할레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으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니, 실제 2차 전도여행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장 처음에 등장하는 안디옥/ 루스드라/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드로아 등은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 본다면 사도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등장하는 지명들은 사도바울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찾아간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모드라게섬/ 네압볼리/ 빌립보/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과 같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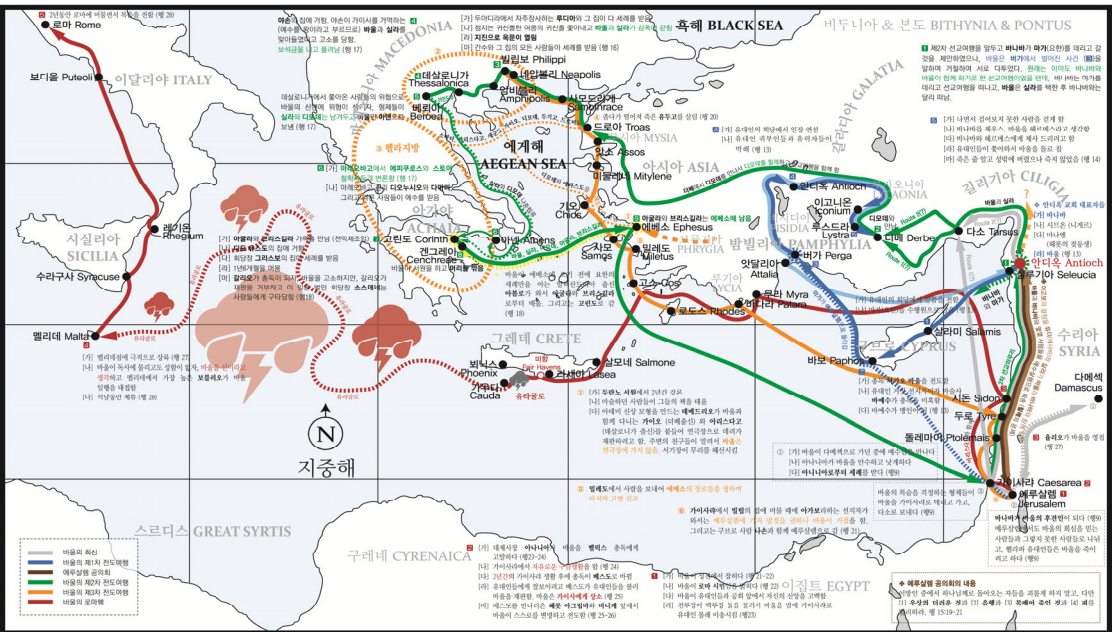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셔서 돌리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아시아’는 사도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바울의 고향도 포함되어 있고, 그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한 ‘안디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무엇보다 흠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용이한 지역입니다.

사도바울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는 당시에 두 번째로 거대한 도시 ‘에베소’도 포함되어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전략이겠습니까?

한 장에 그린 사도행전



이 지도의 저작권은 베타블리(BIBLIA)에 있으며, 성경공부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러므로 상업적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을 금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바울의 전략이 상당히 훌륭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의 길을 막으셔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하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과 이 후에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최후에 복음을 전하는 로마와 고위 공직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도바울을 막으시지 않았다면, 그의 지경이 거기에 머물렀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로마는 ‘법’과 ‘도로’로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로는 폭풍과 해적들로 인해 그리 권장할 만한 이동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길을 바꾸시므로, 헬라 문화와 제국의 중심인 로마로 길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 역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종류의 애씀.

오늘 말씀의 결론은 9절과 10절 말씀에 있을 것 같습니다.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저는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애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의 애씀 가운데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방향을 낳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확신을 낳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개의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또 아시아 지역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그 곳 역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셔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부분인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길을 막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사도바울은 성령님을 거역하고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옮겨다녔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그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는 아예 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8절에 ‘무시아’에 머물지도 못하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간단하게 몇 구절만을 가지고 보니 그런가보다 하지만, 당시에 열악한 교통 환경에서 이렇게 옮겨 다녀야 했던 사도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향이 얼마나 허무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데, 지금 그가 당하는 고통은 확신 없는 방향이니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애써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답답한 것이 있죠?

아마도 사도바울에게도 그런 답답한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구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단서를 찾게 됩니다.

하나는 6절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자신의 계획을 포기 했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 p. 167-170]

“제 안에서 계속 커지는 확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제 말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수세기 전에 드러졌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챔버스와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챔버스는 ‘기도의 목적’이 인간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을 강요하여 복을 내리시도록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이다. 기도는 싸움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싸움 그 자체이다. 기도는 양면성을 갖는다. 확실하게 구하는 것이며 또한 구한 것을 받으라고 믿고 분명하게 기다리는 것이 기도이다.”

사도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나서 다다른 곳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막으심이 분명하다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영이 아닐 때,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도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가 알고 있었던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간관계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선교를 하고자 하는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답답한 시간 가운데 사도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헛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종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시간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지 못했던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너희 인생에 확신을 가져다주는 계기들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심을 확신하고 나니, 빌립보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더욱 자신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확실한 인생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알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사도바울이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는 로마를 향한 관문인 것이죠.

이제부터 사도바울의 방향이 확신으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안식일에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위대한 동역자 루디아도 만나고, 많은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빌립보의 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바울과 실리가 옥에 갇힌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서 상상을 합니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니, 지금 감옥 안에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으면 견딜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 터가 흔들리며 그들을 맨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옥에 갇힌 것이 무엇이 명예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묶고 있는 사실이 풀렸다는 것이 ‘도망가는 신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주변을 살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니 할 일이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죄수가 도망간 지 알고 두려워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장이 보였고,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속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말입니다.

어쩌면, 아시아에서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 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아픔 치욕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더니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확신에 찬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인생에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디딤돌’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메시지>

1.내가 세운 계획은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에서 나온 계획이다. 완벽한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계획일 뿐이다.

2.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손에 모든 만물이 붙들려 있다. 내 때와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가 세운 불완전한 계획을 완전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3.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다. 불완전한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다.

4.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닌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다.

5.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아래 그림이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딸이 그린 낙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엄마의 손길

